



GE, 세계 최초 친환경 마린 가스 추진 선박의 선급 안전성 검토 완료

- 유수의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페리선 개발 완료
- GE 가스터빈 기반 선박 추진 시스템에 디젤 대신 친환경 가스 연료 도입한 최초 사례
- 향후 강화된 글로벌 환경·안전 규제 준수 및 운영비 절감 기대

2017 년 5 월 23 일, 부산 - GE 항공의 마린 가스터빈 사업부(대표: 브라이언 볼싱어)는 지난해 11 월 LPG 추진 페리선 개발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(MOU) 체결 후 선박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, 선급 안전성 검토(Hazard Identification Study, HAZID)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안전성 검토(HAZID) 회의는 4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3 일간 부산 한국선원센터에서 프랑스 선급 뷰로 베리타스(Bureau Veritas) 주관으로 진행됐다. LPG 추진 선박 개발 MOU 참여사인 영성글로벌, 디텍, 대한 LPG 협회, E1, SK 가스, 극동선박설계, 앤서, GE 가 참석하여 가스터빈 기반 추진 시스템과 LPG 연료 공급 시스템 등 선박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.

선박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설계를 거쳐, 선급 안전성 검토 건조 계약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중 안전성 검토는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주요 단계 이다. 특히 선박의 설계, LPG 탱크와 연료 주입 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개발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. 선박의 소유주인 영성글로벌을 비롯해 선박 운영을 맡은 디텍, LPG 연료 탱크 및 가스 공급 시스템 설계에 앤서, 선박 설계에 극동선박설계, LPG 공급업체와의 조율을 담당한 대한 LGP 협회, LPG 연료공급 업체 E1 과 SK 가스 등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. 참여사와 GE 는 이후 선급 기본 승인(Approval in Principle, AIP)을 획득하고 건조 계약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한편, 새롭게 개발될 페리선의 동력 공급을 위해 가볍고 크기가 작은 GE 가스터빈 기반의 'COGES 시스템(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& Steam,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조합한 복합발전 전기추진 방식)'이 장착된다. GE 의 COGES 시스템은 윤활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황, 질소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킨 친환경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.

브라이언 볼싱어(Brien Bolsinger) GE 항공 마린 대표는 “GE 의 COGES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LPG 추진 페리선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기쁘다” 며 “이번 안전성 검토 회의는 선박의 위험 요소와 안전 장치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절차이자,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. 유수의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선박은 친환경 연료인 LPG 와 GE 의 COGES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영비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이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요구되는 경제성 및 환경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것”이라고 말했다.

###



GE 항공의 마린 가스터빈 사업부에 대하여

GE 의 마린 가스터빈 사업부는 GE 항공 내의 사업부 중 하나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있다. GE 는 6,000-70,275 축마력/4.5-52 메가와트급 항공 가스터빈 등을 포함한 선박 추진 제품, 시스템, 그리고 솔루션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. 이 가스터빈은 -40-120F°/-40-48C° 의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. (www.ge.com/commercialmarine)

GE 에 대하여

GE 는 세계적인 ‘디지털 산업 기업(Digital Industrial Company)’으로,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 및 솔루션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. GE 의 산업 기계와 솔루션들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응과 미래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합니다. GE 는 “GE 스토어(GE Store)”라는 글로벌 지식 공유 체계를 통해 GE 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, 지식을 전사적으로 활용합니다. GE 는 인재와 서비스, 기술과 규모를 바탕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. www.ge.com

한국에서는 1976 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하며,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1,500 명의 직원들이 발전, 석유와 가스, 전력 송배전, 항공, 헬스케어,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웹사이트 (www.ge.com/kr, www.geblog.kr, www.gereports.kr) 참조

문의:

GE코리아

정혜리 과장 (02-6201-4025)

더 시그니처

우수미 부장 (02-6951-3562)

윤하은 대리 (02-6951-3559)

김현경 컨설턴트 (02-6951-3560)